

탈북자의 가치관 변화와 사회문화적 적응 및 만족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진 미 정¹⁾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탈북자의 여초(女超)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그동안 단일한 집단으로 간주해왔던 탈북자들의 집단 내적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증가하였다. 탈북여성과 남성의 적응상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물질주의,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 전통적 성역할 성향 등의 가치관의 변화를 성별에 따라 비교하고, 가치관이 사회문화적 적응 및 만족도에 대한 성별 효과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1995년 이후 입국한 18세 이상 탈북자 195명(남성 84명, 여성 111명)의 설문 자료를 분석하여 비교해 본 결과, 북한에 있었을 때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물질주의, 집합주의, 가족주의, 전통적 성역할 성향을 더 높게 가지고 있었으나 남한에 온 이후에는 성별 차이가 수렴되어 가족주의 점수에서만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쌍체 t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치관 변화를 더 크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통적 성역할태도와 물질주의 성향이 약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활동제약, 개인적 차별, 정서적 문제, 사회적 소외 등으로 조사한 사회문화적 적응에서는 정서적 문제에 있어서만 성별 차이가 나타났고, 남성이 여성보다 문제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건강, 자기 자신, 삶의 주위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 사회문화적 적응과 만족도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는 가치관 점수를 통제할 때 사라졌으며, 이는 가치관이 성별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여성이 남성보다 사회문화적 적응에 유리한 조건에 있으며 더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탈북자, 가치관, 사회문화적 적응, 만족도, 성별 차이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의 연구비 지원과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본 연구는 2007년 인간발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음.

1)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조교수 (E-mail : mchin@snu.ac.kr)

I. 문제 제기

1990년대 후반 심각한 식량위기 이후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이나 남한으로 향하는 탈북자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 중 남한으로 들어와 정착한 탈북자(새터민)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더니 2007년 드디어 일만 명을 넘었다. 탈북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주목되는 흥미로운 현상 중 한 가지는 탈북자의 여초현상이다. 2000년 이전까지는 남한에 온 탈북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많았으나 2002년부터는 여성입국자의 수가 남성입국자의 수를 초과하였다(통일부, 2006). 탈북자의 여초현상은 점점 심화되어 2003년 남성입국자는 여성입국자의 57.6%, 2004년에는 49.4%, 2005년에는 43.9%, 2006년 6월 현재에는 37.3%에 불과하였다. 탈북자의 여초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과 탈북자 집단 내 성별 차이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 역시 증가하였다.

탈북여성이 증가하는 데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내부 상황, 제3국에서의 상황, 전문 브로커의 활동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조선일보, 2005.11.02). 경제난 이전부터 북한에서는 가내작업반, 장마당 등 비공식 부문에서의 경제활동이 주민 생존의 기반이 되었는데, 경제난과 더불어 여성들이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가 더욱 증가하였다(박영자, 2007; 이미경, 2006). 북한남성들이 공장, 기업소 등의 공식적 작업장에 묶여 있는 것에 비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비공식 부문에서의 경제 행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가족 생존의 전략으로 여성의 비공식적 경제 행위가 활성화되었고, 탈북 역시 이러한 경제 행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비공식적 외화벌이를 위해 국경을 넘는 탈북과 입북을 반복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중국 등 제3국에서 취업하거나 은신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식적으로는 서비스업 부문에서, 비공식적으로는 조선족이나 한족과의 인신매매혼 등에서 북한여성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북한여성들은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중국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탈북 시키기에 용이하고 브로커 비용을 받는 데도 수월하다는 이유로 전문 탈북 브로커들이 남정보다 여성을 선호한다는 것 역시 탈북자의 여초현상에 기여하였다(한국일보 2006.09.13).

그동안 북한연구나 탈북자연구에서는 북한여성이나 탈북여성에 대해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왔다. 대체로 초기 선행연구들은 북한에서의 여성 지위, 생활, 여성정책이라는 주제에 제한되는 경향이었던 것에 비해 최근의 연구들은 중국 내 탈북여성에 대한 실태를 밝히거나(노치영, 2002; 백영옥, 2002),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경제활동과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박영자, 2007; 오유석, 구수미, 2004; 이미경, 2006; 임금숙, 2001; 임순희, 2007), 북한여성의 가정 내 역할을 조망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북한가족의 생존 전략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밝히고(박미석, 장진경, 2000; 박현선, 2003), 이들이 어떻게 남한 사회에서 적응하고 있는지(이금순, 2006; 장혜경, 김영란, 2000)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에서 성별비교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으며 탈북남성과 여성의 적응이 어떻게, 그리고 왜 다른지에 대한 분석이나 설명을 시도한 적도 별로 없다. 탈북자들의 정착 실태조사나 연구에서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는 하지만, 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종종 실태조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되었다. 실태조사의 차원을 넘어 이들의 적응을 좀 더 상세한 비교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 탈북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적응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적응수준을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문화적응 관점에서 볼 때, 적응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차원의 적응을 모두 포괄하는 복잡한 과정이다. 각 영역에서 탈북자들은 각각 다른 정도의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특히 성별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영역에서는 남성이,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는 여성이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문화, 관습, 인간관계 등의 적응을 의미하는 사회문화적 적응은 경제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남한사회에 대한 사회문화적 적응을 통해 궁극적으로 탈북자들의 경제적 적응, 심리적 안정, 나아가 사회통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탈북여성과 남성을 비교할 때 사회문화적 적응 외에 또 고려해야 할 것은 탈북자 스스로 평가하는 주관적 만족도이다. 앞서 언급했

듯이 탈북여성의 증가 배경에는 자발적인 요인과 비자발적 요인이 작용한다. 중국이나 한국에서 정착하기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개인 또는 가족의 생존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탈북과 이주를 선택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탈북여성의 적응이 실제 삶의 만족도와 연관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탈북자로서, 그리고 이주여성으로서의 탈북여성의 적응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탈북자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적응의 성별차이를 설명하는 요인들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었다. 새로운 사회에의 문화적응은 개인의 가치관 변화를 초래한다(Berry, 1988). 특히 탈북자들은 북한과 매우 다른 사회체제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가치관을 재조정해야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탈북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남한사회의 가치와 문화가 탈북남성보다는 탈북여성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지만 실제 적응과 가치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북자들의 가치관 변화가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 변화가 성별에 따른 적응의 차이를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탈북여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자 인구를 동일한 집단으로 보지 않고 그 내부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탈북자집단을 단일하고 동질적으로 조망해온 접근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성별 차이를 고려한 정착 지원 정책

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탈북자 현황과 남한 사회 적응

2007년은 탈북자 일만 명 시대가 시작된 해이다. 북한의 식량위기 이후 국경을 넘는 북한주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탈북자의 대다수는 중국 등 제3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 중 일부는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입국하였다. 현재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탈북자의 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지만, 2007년 미국 난민이민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약 3만 명의 탈북자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World Refugee Survey: China, 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 2007). 같은 기관의 2006년 보고서에는 중국에 약 5만 명의 탈북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 숫자가 감소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중국 당국의 엄격한 국경관리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거주 탈북주민이 감소한 것에 비해 남한으로 오는 탈북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2년부터는 한 해에 입국하는 탈북자의 수가 일천 명을 넘어섰고 2006년 6월 현재 총 9,706명의 탈북자가 남한에 거주하고 있다. 탈북자의 수적 증가와 함께 주목되는 현상은 여성의 급격한 증가이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98년까지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625명 중 여성은 43

명(6.9%)에 불과하였다. 2000년부터 탈북남성과 탈북여성의 규모가 비슷해지더니 2002년부터는 여성의 숫자가 남성의 숫자를 초월하였고, 2005년에 입국한 탈북자 1383명 중 69.5%가 여성이었다. 중국거주 탈북자의 현황에 대한 최근의 통계는 발표된 적 없으나, 탈북지원단체인 ‘좋은 벗들’의 1999년 보고서에서는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3배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탈북자의 증가에 따라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탈북자에 관련된 연구들은 이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과 그 대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사회경제적 체제가 매우 다른 두 사회에 순차적으로 접하게 된 탈북자들은 문화적응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다. 문화적응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와 접촉할 때 경험하는 변화를 말한다. 문화적응의 과정은 경제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며(Berry, 1988), 일상생활 속에서 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 정체성 문제, 가치관 문제, 가족 문제 등을 야기한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가장 심각한 탈북자의 적응문제는 경제적 영역에서 나타난다. 탈북자들은 취업, 직장생활 유지와 경제활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박미석, 이종남, 1999; 윤인진, 2000; 장혜경, 김영란, 2000; 조정아, 정진경, 2007).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하게 되는 일들은 대체로 북한에서 하던 일과 무관한 경우가 많고, 북한에서 가졌던 학력이

나 경험에 비해 하향취업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윤인진, 2000). 직업에 대한 불만족, 문화적 차이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 강도 높은 노동에의 적응 문제 등은 탈북자들이 직업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원인들이다.

이러한 경제적 부적응 문제는 단지 생계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박탈감, 불안, 자존감 저하, 우울 등의 심리 정서적 문제와 연결되고(전우택, 2000), 나아가 가족관계와 역할 등 가족 내부의 문제로 연결되기도 한다. 가부장적인 북한의 가족생활에 익숙해 있던 북한남성들이 남한에 와서 생계 부양자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족 내 성역할 구조가 변화하고 가족 갈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영수, 2000; 장혜경, 김영란, 2000; 조영아, 전우택, 2005). 남성들이 전적으로 가족부양을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반면, 여성들은 가족을 부양할 취업 기회와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 여성들의 직업역할 수행은 전통적 성역할 태도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변화가 가족 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탈북자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이 모두 동일한 정도의 적응 문제를 갖는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들은 탈북자의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가족 특성이나 사회적 지원 여부에 따라서 적응의 수준이 달라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에서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응에 유리하고(이기영, 2000; 전우택, 2000), 가족을 동반한 경우에,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경우에 적응

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박미석, 이종남, 1999; 윤인진, 김숙희, 2005; 한인영, 이소래, 2002).

선행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탄력적으로 적응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들이다. 일반적으로 이주자가 새로 정착하는 사회는 자신들의 출신국에 비해 사회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에게 유리한 문화적 규범과 가치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주남성들이 가부장적 가치나 권위를 상실하는데 비해 여성들은 새로운 문화를 보다 빨리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이금순, 2006). 경제적 적응 과정에서도 여성들은 새로운 사회에서 별다른 직업훈련을 요하지 않는 비공식부문에 취업하기에 보다 용이한 반면, 남성들은 하향취업에 대한 저항감을 더 크게 갖는다(이금순, 2006).

북한과 남한은 서로 매우 다른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탈북자들의 문화적응 과정은 이러한 차이에 적응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집합주의와 가족주의 가치가 강하게 존속하고 있는 사회이다(이기춘, 이기영, 이은영, 이순형, 김대년, 박영숙, 최연실, 2001). 사회주의 체제는 집단주의 특성을 강화시키며, 동시에 김일성주석과 당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부장주의는 개인생활에서도 가정의 가부장주의와 전통적 가족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순형, 1999). 탈북자들의 가치관 변화를 조사한 이순형, 진미정(2006)의 연구에서는 탈북자들이 남한에 있을 때보다 북한에 있었을 때 집합주의, 물질주의, 가족주의,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남한에 온 후 대체로 이러한 가치성

표 1. 탈북자의 연도별 입국 현황

구 분	'89이전	'90~'99	'00	'01	'02	'03	'04	'05	'06.6	합계
인원(명)	607	48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854	9,706

자료: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사회문화교류본부). 2006; 대북정책 초점. 새터민 관련 통계. 2004.

표 2. 성별에 따른 입국자 현황

구분	'89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6	합계
남	582	97	43	56	53	90	180	294	514	468	626	422	232	3,657
여	43	12	13	30	18	58	132	289	625	813	1,268	961	622	4,884

자료: 통일부. 국정감사 자료(사회문화교류본부). 2006; 대북정책 초점. 새터민 관련 통계. 2004.

향들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시간적 요소에 영향을 받아서 제3국 거주기간이나 입국 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약화되는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비추어볼 때, 탈북여성과 남성의 적응상의 차이는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비교 분석한 연구가 별로 없으며, 가치관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북한여성과 탈북여성 연구

북한여성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북한사회체제에서의 여성 지위, 생활, 여성정책 등의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강한 가부장

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가부장제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은 정권수립 초기부터 혁명의 역군으로 여성을 참여시킨 동시에 가정 내의 성별분업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왔다. 한편으로는 여성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법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조치를 법제화하였다(윤미량, 1991).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동맹을 통한 교양학습을 통해 어머니 역할과 아내 역할을 강조하는 전통적 성역할 교육을 실시해왔다.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여성들은 생존을 위한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경제난과 더불어 북한의 배급제는 평양, 군대, 간부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해체된 상황이며, 대신 가내작업반과 각종 부업 등 비공식 생산이 확대되고 시장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박영자, 2006). 여성들은 각종 부업과 가내작업반을 통해 일상생활용품을 만들어내고, 이를 장마당에서 거래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활동은 점차 북한 내부를 넘어 중국과의 비공식적 무역을 가능하게 하였고, 북한여성들의 탈북은 대체로 경제 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들이나 탈북자들의 진술이 보여주는 것처럼 북한여성들의 탈북은 처음부터 남한으로 오기 위한 것보다는 가족생계와 부양을 위해 중국에서 단기간 돈벌이를 하기 위한 것이 많다.

탈북여성의 증가는 남북한 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동시에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탈북자의 여초현상은 중국에서의 노동 및 결혼 수요와 관련이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중국거주 탈북자들을 일괄적으로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적발 시 강제 복송시키던 정책을 다소 변경하여 중국남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장기체류 탈북여성에게 지방정부차원에서 거주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뉴스한국, 2007년 7월 16일). 이러한 정책은 중국 내륙지방의 심각한 여성부족현상으로 인한 결혼시장 불균형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탈북여성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중국사회에서 탈북여성들의 선택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한 것이다. 탈북여성들은 중국에서의 취업이 기대한 만큼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지속적인 신분상의 위협 때문에 결혼과 가족형성을 생존전략으로 선택하거나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여성들을 심층 면접한 김태현, 노치영(2003)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인과 (비공

식적으로) 결혼한 탈북여성들은 북한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남편과 시대식구들로부터 차별과 무시를 경험하며 일상생활에서도 감시, 학대, 적응의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탈북여성들의 적응을 질적 방법으로 연구한 조영아, 전우택(2005)의 연구에서 결혼한 적이 있는 탈북여성들은 남녀 간의 역할과 지위 변화에 따른 갈등, 중혼이나 동거로 인한 갈등, 남한 출신 남편과의 부부관계 문제, 자녀교육, 부모 봉양 및 영유아자녀 양육, 직업훈련 및 직장생활, 건강 영역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여성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생존하고 적응해야 하는 과제 뿐 아니라 부부나 부모로서의 역할로 인해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이주여성이 남성보다 새로운 사회에 더 탄력적으로 적응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 탈북여성이 서비스 노동과 혼인 전략을 통해 남성에 비해 새로운 사회에 더 잘 적응한다고 하더라도 이 적응은 생존 수준의 적응일 뿐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적응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 여성들은 생계를 해결하는 대신 부부관계 문제,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가족과의 갈등, 성적 학대나 폭력 등의 문제를 떠안는다.

탈북여성과 남성의 비교는 복합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적응 수준을 살펴보고, 적응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나 만족 상태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해석에 있어서도 주의를 필요로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북한의 식량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에 입국한 18세 이상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탈북자 신문사의 협조를 얻어 신문이 배달될 때 같이 배달하여 신문사를 통해 회수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2005년 3월 28일부터 배부되기 시작하여 5월 6일까지 300부를 배부하여 총 195부가 회수되었다. 신문을 구독하는 서울 경기지역의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한 편의표집법으로 대상을 수집하였으므로 본 조사의 표본이 전체 탈북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측정도구

탈북자의 가치관은 이순형(1996, 2005)의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물질주의 가치 4문항, 집합주의 가치 2문항, 개인주의 가치 2문항, 가족주의 가치 4문항, 전통적 성역할 태도 2문항을 포함하였다. 탈북자들은 각 영역에 대하여 북한에 있을 때와 현재 남한에 살고 있을 때를 비교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신뢰도 평가를 위해 Cronbach's α 분석을 해본 결과, 북한/남한에서의 물질주의 가치관의 α 는 북한/남한 각각 .61과 .50, 집합주의 가치관의 α 는 각각 .30과 .59, 개인주의 가치관의 α 는 각각 .67과 .57, 가족주의 가치관의 α 는 각각 .54과

.32, 그리고 성역할 태도의 α 는 북한/ 남한 각각 .54과 .39였다. 이 척도는 선행연구에서 한국의 다양한 연령층과 성별에 적용되어 신뢰도가 검증된 바 있으나(이순형, 1996, 2005),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비해 α 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척도가 탈북자의 가치관을 측정하는데 적합성이 떨어지며, 본 연구의 결과가 탐색적인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한계점과 더불어 앞으로 탈북자의 가치관을 보다 잘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남한생활에의 적응은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련된 문항과 삶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조사되었다. 사회문화적 적응은 장혜경, 김영란(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회적 활동제약, 개인적 차별, 정서적 문제, 사회적 소외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사회적 활동제약은 '나는 사회적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과 접촉을 꺼릴 때가 있다' 등 4개 문항과 개인적 차별은 '사람들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그들에게서 차별을 느낀다' 등 3개 문항, 정서적 문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등 2개 문항, 사회적 소외는 '나는 내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등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도구들의 신뢰도 평가를 위해 Cronbach's α 분석을 한 결과, 전체 α 는 .78, 사회적 활동제약의 α 는 .72, 개인적 차별의 α 는 .70, 그리고 사회적 소외의 α 는 .65로 대체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건강, 직장생활, 친구관계, 자기 자

신, 삶의 주위환경 등 총 5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이외에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설문도 포함되었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 현재 하는 일, 현재 가족과 함께 사는 지 여부 등의 인구학적 특성 이외에 탈북시기 및 입국시기, 탈북 시 가족동반여부 등을 질문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고, 성별에 따라 가치관, 사회문화적 적응,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가치관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쌍체 t 검정을 실시하였고,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적응 및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가치관이 매개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성별에 따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 195명 가운데 여성은 111명(56.9%), 남성이 84명(43.1%)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평균 연령은 여성이 34.3세, 남성이 33.9세로 거의 비슷하였다. 가족동반 탈북 여부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가족과 같이 탈북한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 가족과 함께 사는 정도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정도로 조사되었다. 결혼지위는 미혼, 기혼이면서 배우자와 현재 같이 사는 경우, 기혼이지만 배우자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배우자가 북한에 있는 경우 포함)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남성의 경우 미혼 비율, 배우자와 동거, 배우자와 비동거 비율이 모두 여성보다 높았다.

탈북 후 기간과 입국 후 기간을 조사한 결과, 조사당시 여성은 탈북한지 평균 5.6년, 남성은 4.7년으로 여성이 약 1년 정도 더 오래된 것에 비해 입국 후 기간은 여성이 평균 1.73년, 남성이 2.14년으로 여성이 제3국에서 더 오랜 기간을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하는 일을 조사하였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 불안정한 직업 상태를 보였지만, 특히 여성의 취업 상태가 더욱 열악하였다. 여성 중 직업을 가진 경우는 정규직(10.8%)과 일용직(18.0%)을 모두 포함해서 18.8%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학생(17.1%), 취업 준비(17.1%), 구직 중(11.7%) 등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원천 역시 여성은 가구원의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이라고 한 비율(34.2%)이 남성(58.3%)보다 더 낮았다. 반면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주 소득원이라고 한 비율은 여성(26.1%)이 남성(14.3%)보다 높아서 탈북여성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을 짐작하게 하였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질문에 무응답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무응답은 결혼지위, 현재 하는 일, 수입의 원천 등 사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내용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탈북여성이 남성보다 자기노출을 꺼려하고 있으며 사생활과 관련되어 솔직하지 않게 응답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높은 무응답 비율은 본 연구 자료의 신뢰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점과도 관련된다.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특
이후의 분석에서도 무응답 결측치를 제외하고 별히 조심스러운 태도가 요구된다.

표 3. 연구 참여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성별 비교 (N=195)

변 수	범 주	여 성(N=111)	남 성(N=84)
연 령	20세 미만	6(0.5)	5(0.6)
	20-29세	25(22.5)	22(26.2)
	30-39세	51(45.9)	34(40.5)
	40-49세	11(1.0)	13(15.5)
	50세 이상	9(0.8)	5(0.6)
	무응답	9(.08)	5(0.6)
가족동반 탈북	가족동반	46(41.4)	28(33.3)
	혼자	42(37.8)	49(58.3)
	무응답	19(17.1)	11(13.1)
현재 누구와 사는가	가족과 함께	41(36.9)	35(41.7)
	혼자	57(51.4)	52(61.9)
	무응답	9(0.8)	1(0.1)
결혼지위	미혼	26(23.4)	39(46.4)
	기혼, 배우자 동거	12(10.8)	13(15.5)
	기혼, 배우자 비동거	20(18.0)	23(27.4)
	무응답	49(44.1)	13(15.5)
탈북 후 기간(평균)		5.60	4.66
제3국 거주 기간(평균)		3.42	2.50
입국 후 기간(평균)		1.73	2.14
현재 하는 일	회사원/공장근로자	12(10.8)	27(32.1)
	일용근로자	20(18.0)	11(13.1)
	학생	19(17.1)	10(11.9)
	검정고시/취업학원	19(17.1)	17(20.2)
	가사/육아	6(0.5)	0(0.0)
	기타	1(0.1)	6(0.7)
	구직 중	13(11.7)	8(10.0)
	무응답	17(15.3)	9(10.7)
수입의 원천	근로소득(가족)	38(34.2)	49(58.3)
	정착금보조	20(18.0)	16 (19.0)
	기초생활수급	29(26.1)	12 (14.3)
	기타	5(0.5)	1(0.1)
	무응답	15(13.5)	10(11.9)

IV. 결과 및 해석

1. 탈북여성과 남성의 가치관 변화

먼저 탈북여성과 남성의 가치관 변화 여부를 알아보았다. 가치관은 물질주의,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 성역할 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북한에서와 남한에서의 인식을 스스로 비교해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북한에서의 가치관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물질주의 성향, 전통적 가족주의 성향 및 성역할 태도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특징을 보였다. 북한에 있을 때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물질중심의 사고와 부계가족 중심의 전통적 사고, 뚜렷한 성별 분업에 대한 동조 경향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남한에 온 이후의 점수를 비교해 볼 때 가족주의를 제외하면 남녀 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가치관과 성향이 유사한 방향으로 수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가족주의에서는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동조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각 영역별로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북한에서의 점수와 남한에서의 점수를 쌍체 t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북한에 있었을 때의 성향 점수에서 현재 남한에서의 성향 점수를 빼서 비교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개인주의 성향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 차이가 가장 큰 영역은 남성성과 여성성에 근거한 전통적 성역할태도였으며, 5점 척도 상에서 남성의 경우 평균 1.23점, 여성의 경우 평균 .97점의 감소를 보였다. 다음으로 물질주의 성향으로 남성은 평균 .73점 여성은 평균 .62점의 감소를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가족주의 성향으로 남성이 평균 .59점 여성이 평균 .58점의 감소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남성의 변화 정도가 여성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남한에 온 이후 남성들이 겪는 가치관의 변화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탈북자의 사회문화적 적응

탈북자의 사회문화적 적응 정도는 사회적

표 4. 북한에서와 남한에서의 탈북자 가치관 성별 비교

구분	북한에서			남한에서		
	여성	남성	t	여성	남성	t
물질주의	3.69	3.88	2.25*	3.08	3.19	0.89
집합주의	3.19	3.36	1.96	2.81	2.89	0.70
개인주의	3.26	3.39	1.06	3.21	3.35	1.32
가족주의	3.57	3.86	3.31**	3.00	3.27	3.38***
성역할태도	3.46	3.73	2.31*	2.48	2.51	0.28

* $p < .05$, *** $p < .001$

표 5. 탈북자의 가치관 변화 성별 비교

변수	여성		남성	
	M (S.D.)	t	M (S.D.)	t
물질주의	.62 (.08)	7.67***	.73 (.08)	8.87***
집합주의	.39 (.07)	5.25***	.48 (.10)	4.77***
개인주의	.05 (.10)	0.49	.01 (.10)	0.17
가족주의	.58 (.06)	9.06***	.59 (.07)	8.19***
성역할태도	.97 (.09)	10.32***	1.23 (.11)	11.39***

*** p<.001

표 6. 탈북자의 사회문화적 적응 성별 비교

사회문화적 적응	여성			남성			t
	N	M	S.D.	N	M	S.D.	
사회적 활동제약	106	2.88	0.68	79	2.91	0.71	0.36
개인적 차별	107	3.03	0.65	81	3.19	0.60	1.69
정서적 문제	107	3.14	0.74	81	3.36	0.70	2.16*
사회적 소외	107	2.86	0.62	81	2.95	0.59	0.96

* p<.05

활동제약, 개인적 차별, 정서적 문제, 사회적 소외 등 네 가지 영역에서 살펴보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상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거나 혹은 주관적으로 어려움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별에 따라 차이를 비교해 보면 남성의 점수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나서 탈북남성들이 여성보다 적응상의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추세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영역은 정서적 문제뿐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정서적 문제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여성보다 남성

에게서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3. 삶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는 건강, 직장생활, 친구관계, 자기 자신, 삶의 주위환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흥미롭게도 삶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이 가치관의 변화를 더 많이 겪고, 사회문화적 영역에서의 문제에 대해 남성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더 낮지 않았

표 7. 탈북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 성별 비교

만족도	여성			남성			t
	N	M	S.D.	N	M	S.D.	
건강	107	2.99	0.76	78	3.31	0.65	2.98**
직장생활	100	3.11	0.60	75	3.01	0.63	-1.03
친구관계	105	3.16	0.67	80	3.29	0.70	1.24
자기 자신	105	3.13	0.73	80	3.35	0.64	2.10*
삶의 주위환경	105	3.16	0.80	80	3.48	0.75	2.72**

* $p < .05$, ** $p < .01$

다. 특히 건강, 자기 자신, 삶의 주위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현재 상태에 대해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만족도 검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가 더 많고,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우울성향이 높고, 만족도가 낮은 경향이 있다(한경혜, 이정화, 옥선화, Ryff, & Marks, 2002).

다른 한편,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사회에서의 가치관 수용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사회문화적 적응에서도 유리한 여성들이지만 건강, 직장생활, 친구관계 등의 측면에서 탈북여성 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사회문화적 적응 수준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이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는 측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4. 탈북자의 가치관과 사회문화적 적응 및 만족도

마지막으로 현재 탈북자들의 가치관과 사회문화적 적응,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의 모델1에서는 성별에 따른 적응 및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모델2에서는 가치관 변수를 포함하여 성별의 효과가 매개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성별에 따른 적응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던 것은 정서적 문제($b = -.23$, $t = -2.19$, $p = .02$), 만족도($b = -.836$, $t = -2.09$, $p = .03$)이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서적 문제 점수가 더 낮고 만족도 점수도 더 낮았다.

다음으로 가치관 점수가 포함되었을 때 성별에 따른 적응과 만족도 차이는 사라져서 가치관이 성별 차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치관과 적응 및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영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회적 활동제약과 관련된 가치

표 8. 탈북자의 가치관과 사회문화적 적응 및 만족도

	사회적 활동제약		개인적 차별		정서적 문제		사회적 소외		만족도	
	모델 1	모델2	모델 1	모델2	모델 1	모델2	모델 1	모델2	모델 1	모델2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β (SE)
여성	-.02(.10)	.01(.10)	-.15(.09)	-.10(.09)	-.23(.10)*	-.16(.11)	-.08(.09)	-.07(.09)	-.83(.40)*	-.55(.41)
물질주의		.06(.09)		.21(.08)**		-.05(.09)		.02(.08)		-.05(.36)
집합주의		-.00(.08)		-.12(.07)		-.24(.08)**		-.09(.07)		.17(.31)
개인주의		.14(.07)		.23(.06)***		-.04(.08)		-.01(.06)		.69(.29)*
가족주의		-.01(.10)		-.02(.09)		.34(.10)**		.06(.09)		.86(.40)*
성역할태도		.25(.08)*		.13(.07)		.02(.08)		.17(.07)*		-.56(.33)
상수	2.90(.07)	1.67(.48)	3.18(.07)	1.88(.42)	3.36(.08)	3.45(.55)	2.95(.06)	2.55(.42)	16.01(.30)	11.99(1.91)
F	.06	2.14	2.87	5.16***	4.79	3.41**	0.89	1.69	4.37*	3.39**

* $p < .05$, ** $p < .01$, *** $p < .005$

관은 성역할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성역할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활동 제약 문제를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차별과 관련해서는 탈북자의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차별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서적 문제에 대해서는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덜 경험하는 반면, 가족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정서적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소외와 관련된 가치관은 성역할태도인데, 전통적 성역할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소외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거나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에 대해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가족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만족도 점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이상에서 탈북자가 경험하는 가치관의 변화, 사회문화적 적응, 삶에 대한 만족도를 성별에 따라 비교해보았다. 전반적으로 탈북자들은 탈북 과정을 거치면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전반적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북한에 있었을 때의 물질주의, 집합주의, 가족주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향은 탈북 과정을 거쳐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화 정도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북한에 있을 때부터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이러한 성향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남한에 왔을 때 변화하는 정도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에 있었을 때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물질주의, 가족주의, 전통적 성역할태도 성향을 더 높게 가지고 있다가 남한에 온 이후 이러한

가치성향이 더 낮아져 남성과 여성의 가치관 차이는 가족주의를 제외하고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문화적 적응을 사회적 활동 제약, 개인적 차별, 정서적 문제, 사회적 소외로 나누어 보았을 때, 정서적 문제에서만 성별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리움, 정서적 문제를 더 많이 겪거나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자기 자신, 삶의 주위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복지감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탈북자들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만족도는 가치관과 관련이 있다. 물질주의 성향은 개인적 차별과 관련되었는데, 물질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남한사람들로부터의 차별이나 편견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고 나아가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주의 성향은 정서적 문제와만 관련이 있었는데, 집합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정서적 문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높은 탈북자들은 사회적 활동제약이나 개인적 차별 문제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생활의 제약,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편견과 차별을 더욱 민감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주의 성향은 정서적 문제와 만족도에 관련되었는데, 가족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정서적 문제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만족도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주의성향이 높을수록 가족에 대한 그

리움이나 죄책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자기 자신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가족중심적인 사고와 관련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성역할 성향이 높을수록 사회적 활동제약이나 사회적 소외 문제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남한사회의 양성평등한 문화와 생활양식, 법제도 등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나아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치관과 사회문화적 적응 및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특히 정서적 문제와 만족도에서 나타났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위계적 회귀분석 모델에 가치관을 포함하였을 때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이는 적응 상에 나타나는 성별 차이가 부분적으로 가치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남성들의 전통적 가치와 태도가 문화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전반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탈북 후 남한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여성보다 남성이 더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탈북남성은 새로운 사회에서 가치관의 변화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적응에서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거나 인식하고 있었다. 탈북이라는 이주 과정에서 남성이 경험하는 문화적 갈등의 수준이 더 높고, 사회적 장애물도 더 많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문화 갈등과 사회 적응이라는 과제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새로운 사회에 보다 용이하게 적응한다고 한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탈북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새로운 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으며, 특히 건강, 자기 자신, 삶의 주위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정신건강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응답한다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탈북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새로운 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적응은 자기만족적인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탈북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 자체는 여성의 생존 가능성이나 적응성이 남성보다 높다는 점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응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응의 맥락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탈북자의 적응의 다층적 의미를 부분적으로 파악하기는 하였으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이러한 제한점은 먼저 설문조사 자료의 문제와도 관련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설문조사의 일부 내용에 대해 무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응답률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연령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무응답 비율이 낮고 성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족동반 탈북 여부, 현재 결혼 지위, 현재 하는 일 등에 대해서는 여성의 무응답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가족이나 결혼, 직업에 관련된 내용을 노출시키기 꺼려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구 자료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무응답 비율이 높은 경우 설문 응답자의 선택적 편이(selection bias)를 의심하게 된다. 설문에 응답한 여성들은 일반적인 탈북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적응하고 있는 경우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탈북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취업 상태와 소득의 원천이다. 탈북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취업과 직업생활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탈북자들은 새로운 경제 체제와 경쟁 구조에 적응하는 일을 매우 어려워한다. 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현재 하는 일을 질문하였을 때 안정적인 취업을 하고 있는 비율이 낮았다. 특히 탈북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취업의 안정성이 더 낮고, 근로소득 이외의 생계급여나 정착금에 의존하는 비율도 더 높았다. 이는 탈북여성의 노동 상황이, 성분절화되고 주변적인 비정규직 노동의 확대라는 여성 노동의 일반적 상황과 더불어 탈북자라는 지위로 인해 이중의 도전에 처해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신체적 건강, 가족 문제, 직업 생활의 측면에서 탈북여성의 적응은 사회문화적 적응에서 나타난 것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가치관 수용이라는 점과 사회문화적 적응에서는 탈북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유리한 상황에 놓여있고 보다 탄력적으로 적응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한 질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영역에서의 탈북여성들의 적응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영수 (2000). 북한이탈주민의 가족문제. 사회과학연구, 9, 102-117.
- 김태현, 노치영 (2003).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서울: 도서출판 하우.
- 노치영 (2002). 생존전략으로서의 탈북과 가족해체 경험: 북한여성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간생활환경연구소 논집, 1, 95-118.
- 박미석, 이종남 (1999). 탈북가족의 남한가족 적응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논총, 17(1), 3-74.
- 박미석, 장진경 (2000). 남북한 가정경영 비교를 통한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 아세아여성연구, 39, 161-210.
- 박영자 (2007). 경제난 이후 북한 체제와 젠더의 구조 및 변화. 통일논총, 33-67.
- 박현선 (2003). 현대북한사회와 가족. 서울: 한울아카데미.
- 백영옥 (2002). 중국 내 탈북여성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241-264.
- 오유석, 구수미 (2004). 여성들의 삶과 의식변화. 최완규(편) 북한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 서울: 한울아카데미.
- 윤미량 (1991). 북한의 여성정책. 서울: 한울아카데미.
- 윤인진 (2000).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2), 123-184.
- 윤인진, 김숙희 (2005). 국내탈북자의 건강 및 의료. 보건과 사회과학, 17, 149-182.
- 이금순 (2006). 여성이주자의 사회적응과정 연구: 북한이탈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아세아여성연구, 45(1), 191-234.
- 이기춘, 이기영, 이은영, 이순형, 김대년, 박영숙, 최연실 (2001). 통일에 앞서 보는 북한의 가정생활문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기영 (2000). 탈북자가족의 남한사회 적응과정. 가족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 이미경 (2006).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지위변화 전망. 가족과 문화, 18(1), 33-55.
- 이순형 (1995). 가족주의와 집합주의, 성취지향성과 양육 가치간의 관계: 중류층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국사회학회지, 30(가을), 545-573.
- 이순형 (1999). 북한의 주체사상 사회화 정책의 원리와 그 한계. 교육학연구, 37(4), 120-136.
- 이순형 (2005). 붉은 악마와 월드컵.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순형, 진미정 (2006). 새터민의 가치관 변화: 물질주의,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와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3(3), 1-19.
- 임금숙 (2001). 북한의 식량위기와 북한여성의 경제활동.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편). 북한의 식량위기와 여성. 서울: 한국여성

- 연구원.
- 임순희 (2007). 경제난과 북한여성. 통일논총, 25, 5-32.
- 장혜경, 김영란 (2000). 북한이탈주민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40-13.
- 조영아, 전우택 (2005).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17-35.
- 조정아, 정진경 (2007). 새터민의 취업과 직장생활 갈등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15(2), 29-52.
- 좋은 벗들 (1999). 북한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 보고서.
- 전우택 (2000). 사람의 통일을 위하여. 서울: 오름.
- 통일부 (2004). 대북정책초점. 새터민관련 통계.
- 통일부 (2006). 국정감사자료(사회문화교류본부)
- 한경혜, 이정화, 옥선화, Riff, C., & Marks, N. (2002). 중년기 남녀의 사회적 역할과 정신건강. 한국노년학회지 22(2), 209-225.
- 한인영, 이소래 (2002). 북한이탈주민의 이주형태 및 성별에 따른 건강관련 특성 비교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10, 121-142.
- 홍규덕 (2002). 탈북여성 인권보호의 국제정치학적 의미와 대안 모색. 아세아여성연구, 41, 3-52.
- 뉴스한국, 2007. 7. 16. 중국 탈북여성 정책 조용히 변화.
- 조선일보, 2005. 11. 02. 유엔 여성탈북자 증가 가능성 우려.
- 한국일보 2006. 09. 13. 중국서 성노예로 팔려가 이혼도 재혼도 어려워.
- Berry, J. W. (1988).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A Conceptual Overview. In J. W. Berry & R. C. Annis (Eds.) Ethnic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with Immigrants, Refugees, Native Peoples, Ethnic Groups and Sojourners. Berwyn, PA: Swets North America.
- U. 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 (2007). World Refugee Survey: China.

1 차원고접수 : 2008. 01. 31.

수정원고접수 : 2008. 02. 18.

최종게재결정 : 2008. 02. 20.

Gender Differences in Value Orientations, Levels of Socio-Cultural Adjustment, and Satisfaction on the Part of North Korean Defectors

Meejung Chi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number of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increases, their ability to adjust to their changed circumstances has increasingly become an important social and academic issue.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he levels of socio-adjustment and satisfaction on the part of North Korea defectors differs according to gender and whether such gender differences are mediated by a series of value orientations. T tests, paired t test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the primary method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urvey data, and the sample consisted of 111 women and 84 men from North Korea. This study found that men experienced greater changes in the level of materialism, collectivism, familism, and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s since leaving North Korea. Whereas men experienced more problems in terms of their socio-cultural adjustment, they also exhibited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However, the gender differences in terms of both adjustment and satisfaction tended to disappear after controlling the series of values. Overall, the results indicate that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tend to be more adept in their degree of socio-cultural adjustment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Key words : North Korean Defectors, gender differences, value orientations, socio-cultural adjustment, satisfaction